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동향(7월 1주차)

국가		주요 동향
인도네시아	바이어·수입	○ 인도네시아 농업부식품안전국(BKP), 미국·캐나다·호주에서 발생한 한국산 팽이버섯 리스테리아균 감염사건으로 인해 한국 Green Co., Ltd사의 팽이버섯에 대한 검사진행 결과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되어 유통금지·리콜·폐기처리 및 한국산 팽이버섯의 수입 감독강화 지시
	유통·소비	○ 인도네시아 신용카드협회에 의하면 소매점·식당·호텔 등 상업시설의 제한적 영업에 따라 거래액 급감하여 4월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
미국	바이어·수입	○ 현재 뉴욕으로 입고된 한국산 마늘이 부패로 인해 30%정도 손실되고 있음. 현지 시장 입점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산 마늘의 품질 유지가 최우선임. 포장 및 운송 방법 개선을 통한 신선도 향상 노력 필요
	기타	○ FDA에서는 “Smarter Food Safety” 즉 새로운 기술력을 결합한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 최신 기술들을 반영하여 디지털, 추적성, 안전성이 향상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전략적 청사진을 구상 중에 있음. 3개의 주요 개발 분야는 향상된 추적성으로 인한 공급망의 가시성 확보, 온라인 식품 주문을 위한 기술력 증대, 농장, 식품제조시설, 가정에서의 식품안전문화 추진임 ○ 캘리포니아 주지사 코로나 재확산 ‘봉쇄령’ 다시 발령(6.28) / LA카운티를 비롯한 15개 카운티 술집, 클럽 운영 중단
EU	바이어·수입	○ (프랑스) 비즈니스 미팅 자제 분위기로 신제품 입점 등 협의 지연
	기타	○ EU 역외 이동제한조치 국가별 해제 예정이며, **7월부터 한국 등 14국* 출입국 허용** *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및 **한국** ○ 각국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부상** - 독일은 대형도축장 집단감염 발생으로 일부 지역(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봉쇄조치 재시행 - 잉글랜드는 7/4부터 펍, 레스토랑, 미용실, 호텔 등 영업재개 허용으로 봉쇄조치 완화코자 하나, 중부도시 레스터는 최근 2주간 감염자 급증으로 지역 봉쇄조치 강화 검토 - 스페인은 6.27(확진 564명)까지 5일 연속 확진자 증가 - 다만 프랑스 보건부는 제재완화 3단계 조치(6/22) 시행 이후 현재까지 2차 확산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힘